

이사회-대자협 대립에 조선대 총장 선거 대혼돈

교평 “공모 나서지 말라” 입후보 예정자에 공문

총동창회·교수들 조속한 해결 촉구

총장 선거를 둘러싼 조선대 이사회와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지운영협의회(대자협)간 대립이 학교를 대결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법인 이사회의 총장 선출 방식에 반발해 구성원들이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말라는 교수평의회측 요청 공문까지 발송되면서 학교 안팎은 극심한 혼란 상태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총동창회,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의 하소연도 잇따르고 있다.

◇총장 공모에 나서지 말라는데...어쩌나=조선대 총장 선거와 관련, 교수평의회 공문으로 고민에 빠진 입후보 예정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다.

교수평의회는 지난 13일 총장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이사회의 일방적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입후보 예정자들 입장에서는 기존 대자협 중심의 총장 선거를 진행해온 전례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결기구인 조선대 이사회 총장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난감하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교수평의회와 이사회간 원만한 합의가 공모 마감 전까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감도 얹혀진다. 하지만 지난 13일 진행된 이사회와 교수평의회 등 대자협 소속 구성원간 면담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교수평의회는 이사회의 총장 공모 시한 마감일인 18일, 긴급 대의원을 열고 장기

화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속한 합의를” 목소리 높아=학교 안팎에서는 강대강(強對強) 대결 속에 극단적인 대립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대 총동창회는 지난 13일 ‘16대 총장 선출은 대자협과 법인 이사회 합의로 실시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A 교수도 ‘총장 선거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는 글을 올려 “이해, 양보와 타협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단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B 교수는 “학교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생각하며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며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그 빛을 발휘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다문화가정 초청 ‘복날 건강음식 나누기’

광주 남구 대촌동복지호민관협의회(위원장 나각균)는 14일 나주시 산포면의 한 음식점에서 남구 대촌동 관내 다문화가정 28세대를 초청, 초복(17일)을 앞두고 ‘복날 건강음식 나눔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돈받고 업체 선정 도운

건설사 직원 5명 입건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도운 혐의(배임수재·배임증제)로 광주 모 건설사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추가로 5명을 수사 중이다.

이들은 이 건설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업체 선정을 돕거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입건된 직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공사 입찰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지만 부정행위를 받고 공사 업체로 선정해주는 것은 불법이다”며 “수사 초기 단계로 공사 입찰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두환 등 반헌법행위자 공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총 99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편찬위는 내란, 민간인 학살, 부정선거, 고문·조작사건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집중검토대상자를 발표했다. 수록된 인물 중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기붕 전 부통령, 김형욱·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등 유력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

편찬위는 전·노 전 대통령 등 총 17명을 내란 영역의 반헌법 행위자로 지목했고, 고문·조작사건 영역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 ‘고문기술자’ 이근안, 1986년 부천시 성고문사건 피의자 문귀동 등 44명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무등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국립공원공단, 다음달까지 수영·곤충채집·고성방가 단속

“무등산 계곡서 텐트치고 삼겹살 굽고 아영하면 안됩니다. 계곡에서의 수영, 아이들과 함께 물고기 잡기, 식물·곤충 채집 당연히 안됩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국립공원 내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필요할 경우 야간에도 순찰조를 편성, 비박 행위 및 야간산행 등을 단속 예정이다. 여름철 본격 휴가철을 맞아 도심 속 국립공원이자 숲과 계곡을 품고 있는 무등산에서의 무질서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야간 산행, 흡연, 아영, 오토캠핑, 수영, 취사행위 등이다. 애완동물 반입도 금지된다. 이러한 무질서 행위는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2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단순 무질서 행위와 달리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식물 채집행위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무등산 계곡도 시민들의 통념과 달리 여름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고를 통해 출입금지해제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출입 제한 구역이다. 범정 탐방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고기잡이, 곤충이나 식물 채집 등은 과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가능했던 일이지만 지정 이후에는 자연자원을 온전히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는 행위다.

그러나 무등산 국립공원에서의 여름철(7~8월) 무질서 행위 단속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4년 7건이던 무질서 행위는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지난 2년 여름 동안 국립공원 지정 이후 홍보와 계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무질서 행위는 이를 훨씬 웃돈다는 게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측 설명이다.

지난해 여름 적발된 무질서 및 행위는 취사행위 11건, 어류 채집 4건, 흡연 17건, 출입금지 구역 출입 2건, 애완동물 반입 3건, 쓰레기 투기 2건, 기타 1건 등 40건이다. 적발 장소는 원효계곡 21건, 중심사 계곡 5건, 용추계곡 1건 등 계곡에서만 27건이 집중됐다. 특히 수박깎질을 버리고 가는 행위, 상의를 벗고 산행하는 탐방객, 장시간 계곡 주변에 텐트치고 아영하는 행위 등은 전체 탐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탐방행위라는 게 공원 사무소 측 설명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무등산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여름철 자연이 주는 시원한 계곡은 탐방객들을 유지할 때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즐거운 탐방을 위해 기초질서 유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관절을 위한 선택!

백세까지 건강한 관절을 위한

관절, 연골, 인대 조직을 구성하는 **MSM 2,000 mg 함유!**

연어코연골 추출물 (부원료)

프로테오글리칸 함유
비변성 2형 콜라겐 함유

히알루론산, 상어연골분말, 해조칼슘, 비타민D (부원료)



1,200 mg x 120 정 (2개월 분)

백년백세관절

비타민하우스 가맹약국 건강기능식품 코너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1588-8529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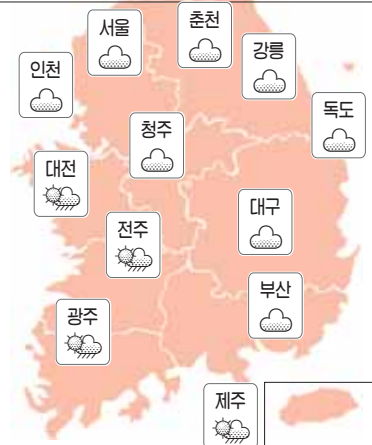
해돋이 05:29 해질 15:33
해짐 19:47 달짐 01:43

나들이 방해하는 장맛비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부터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차차흐려져	23/31	보성	차차흐려져	22/27
목포	차차흐려져	22/27	순천	차차흐려져	22/28
여수	차차흐려져	22/26	영광	차차흐려져	22/30
나주	차차흐려져	22/31	진도	차차흐려져	22/27
완도	차차흐려져	22/28	전주	차차흐려져	23/29
구례	차차흐려져	22/29	군산	차차흐려져	23/28
강진	차차흐려져	22/28	남원	차차흐려져	23/29
해남	차차흐려져	22/28	홍산도	차차흐려져	20/25
장성	차차흐려져	21/30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	남동~남	1.0~2.0	동~남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서)	동~남동	1.0~2.0	동~남동	1.5~2.5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매우높음
미세먼지	좋음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9:58	04:05
	23:13	16:05
여수	05:15	11:29
	18:36	00:00

◇주간 날씨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21(목)	22(금)
☁	☁	☁	☁	☁	☁	☁
22/26	21/29	22/29	21/30	23/29	23/28	23/29